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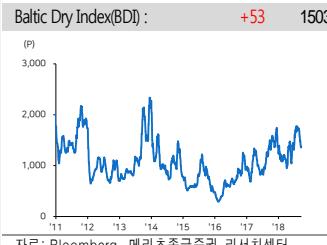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853.2	16.5	128,000	-1.5	12.3	14.8	33.4	892	42.8	0.6	0.6
현대중공업지주	6,262.2	20.6	384,500	-0.6	1.6	4.2	0.9	52	4.3	0.7	0.6
현대일렉트릭	703.2	5.2	68,900	2.2	7.8	-5.5	-39.6	65	5.7	0.6	0.5
현대건설기계	1,214.8	8.4	123,000	-3.9	0.8	-15.2	-27.2	78	5.8	0.9	0.8
삼성중공업	4,945.5	18.1	7,850	-0.4	12.1	6.5	21.4	495	24.6	0.5	1.0
대우조선해양	3,586.0	8.9	33,450	-0.7	15.9	27.2	140.6	83	17.7	1.0	0.9
현대미포조선	1,948.0	9.6	97,400	-1.2	2.4	8.1	23.8	21.0	15.2	0.7	0.7
한진중공업	276.3	7.0	2,605	3.2	0.4	-16.5	-21.3	524	13.1	0.4	0.4
현대엘리베이터	3,259.0	24.7	120,000	11.6	15.4	18.8	120.6	21.2	20.6	2.9	2.6
두산밥캣	3,864.6	26.1	38,550	2.1	10.6	21.6	9.1	14.1	13.3	1.1	1.0
현대로템	2,758.3	3.0	32,450	6.9	4.5	7.3	73.1	41.8	28.5	1.9	1.8
하이록코리아	325.4	48.9	23,900	1.9	-1.2	-16.1	6.2	10.8	9.9	0.9	0.9
성광밴드	358.9	16.3	12,550	-0.8	7.7	6.4	25.8	1,109.4	45.0	0.8	0.8
태평	373.7	13.3	14,100	-0.4	4.8	13.7	17.0	842	41.1	0.9	0.9
두산중공업	1,739.6	15.0	14,850	0.3	1.4	-5.4	-3.3	24.6	9.0	0.5	0.5
두산인프라코어	2,037.9	20.1	9,790	-0.4	-0.5	-1.0	12.7	6.6	6.1	1.1	0.9
HSD에전	150.2	4.4	4,560	2.6	24.3	15.0	77.5	-17.5	-23.1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4,508.2	14.5	46,250	-1.7	14.5	10.5	-2.5	38.7	28.5	3.9	3.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66.1	11.7	26,250	-0.9	7.4	2.5	-28.2	33.9	18.6	0.6	0.6
LIG넥스원	735.9	8.5	33,450	-1.0	6.0	-25.6	-44.1	35.8	17.1	1.2	1.1
태웅	285.1	4.7	14,250	1.1	-3.7	-13.4	-26.4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09.9	5.1	7,780	-0.8	7.6	9.4	54.1	-39.9	20.9	27	25
한국기본	292.8	14.0	6,660	-0.6	6.9	3.1	24.3	77.3	20.5	0.9	0.9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W: 신조선가 지수 130p, 중고선가 지수 99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9p를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함. 현대미포조선은 Seaworld Express에서 Ferry 1척을 수주함. 대 한조선은 Capital Ship Management에서 11.4만DWT급 텁커 2척을 수주했고, 스크루버 장착 후 2020년 상반기 인도 예정임. (Clarksons)

CMA CGM follows Maersk with 2020 fuel surcharge

컨테이너선사 CMA CGM은 Maersk처럼 연료비 부담을 화주에게 전가할 계획임. 2020년부터 TEU 기준 160달러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될 전망임. CMA CGM은 LNG 추진방식 선박을 발주했으나, 2020년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주된 방식으로 스크루버 장착보다는 저유황유를 사용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Capital Ship Management linked to aframax order

그리스 Capital Ship Management은 대한조선에 11.4만DWT급 aframax 텁커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 2, 5월로 예정됨. 선가는 공개되지 않 있으나 4,500만달러 근처로 예상됨. 발주처는 삼성중공업에 2019년 인도가 예정된 VLCC 4척을 발주하고 보유하고 있음. (TradeWinds)

Despite KC-46 problems, US Air Force optimistic about Boeing's Huey replacement

미국 공군은 UH-1N Hueys 헬기 교체사업을 위해 Boeing-Leonardo 팀과 계약 했다고 알려짐. Boeing과 Leonardo는 T-X(미국 차기 고등훈련) 사업에서 Lockheed Martin과 경쟁 중인 업체임. 미국 공군 책임자 Wilson의 인터뷰에 따르면, T-X 사업은 이번 주에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임. (Defense News)

Chevron confirms talks over Rosebank sale

오일메이저 Chevron은 북해에서 준비 중인 Rosebank 프로젝트 지분 40%에 대해 잠재적 구매자로부터 매각 접촉이 있었다고 밝힘. 매각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음. 7월 Chevron은 북해 지역 자산에 대한 전체 매각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으나, Rosebank 프로젝트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Upstream)

MSC latest shipowner to add fuel surcharge

글로벌 2위 컨테이너선사 MSC도 경쟁사인 Maersk와 CMA CGM처럼, 2020년 환경규제에 따른 연료비 증가를 화주에게 전가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병거링 할증료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MSC는 2020년부터 연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연간 20억달러로 예상함. (TradeWinds)

Opec predicts up to 5,000 scrubber installations by end-2023

Opec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약 5천대 스크루버가 장착될 전망임. 스크루버 장착 선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2020년은 2천대에 달할 전망임. 기존 선박용 연료 수요는 2019년 300만bpd에서 2020년 120만bpd로 감소하는 반면, 저유황유 수요는 30만bpd에서 150만bpd로 증가할 전망임. (TradeWinds)

두산밥캣 포터블파워 매각, 딜 성사 눈앞

두산밥캣은 최근 포터블파워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거래 마지막 단계로 상세설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미국에 소재한 동종업체로 알려짐. 두산 측은 다음달 본계약을 목표하며, 매각가는 2,500억원 근처에서 결정될 전망임. (더밸)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